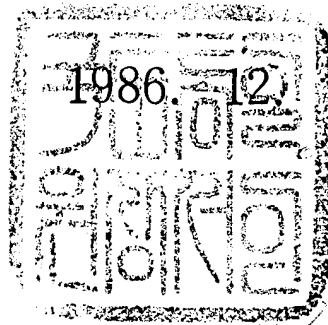


3630.
34p.11

[忠武 9000計劃資料]

北韓의 外交實態와 特性



북한 외교사
 "비밀주의"
 "내선외교"
 "중립외교"

研究執筆責任

日海研究所 研究委員 金 泰 瑞

國 土 統 一 院

目 次

I. 北韓外交의 總括	3
II. 北韓의 地域別 外交	6
1. 北韓의 陣營外交	6
가. 概 要	6
나. 對蘇關係	8
다. 對中共關係	16
2. 北韓의 非同盟 外交	22
가. 概 要	22
나. 非同盟 外交	23
3. 北韓의 對西方 外交	23
가. 概 要	29
나. 對美關係	30
다. 對日關係	34
라. 對西歐關係	39
4. 北韓의 對UN外交	43
가. 概 要	43
나. 對 UN外交	44
5. 北韓의 統一外交	46
가. 概 要	46
나. 統一外交의 變遷過程	47
III. 北韓外交의 特性	51

I. 北韓外交의 總括

먼저 北韓의 外交를 다루기 以前에 北韓을 國際社會의 成員으로 認定치않고 있는 우리立場에서 본다면 疑問점이 提起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南北韓 分斷이 招來한 特殊한 狀況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며 國際社會에서 事實上 北韓을 受容하고 있는 오늘의 實情을 理解하고 또 外面할 수 없는 우리立場을 고려한다면 問題點은 解消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觀點에서 國家間의 交涉인 北韓의 外交를 다루는것이 現實的으로 무리가 없다고 하겠다.

一般的으로 外交政策이 國家目標를 達成하기 위한 政策樹立의 產物이라는 見地에서 보면 北韓의 目標가 韓半島의 共產化에 照準되고 있음을 누구도 否認할 수 없으며 이것은 北韓의 外交政策이 赤化戰略을 遂行하기 위한 對外的인 諸般行態임이 드러난다.

北韓은 蘇聯을 社會主義 創始國으로 指稱하고 自身을 東方의 哨所로 自處하면서 社會主義 建設을 위하여 그 任務를 忠實하게 遂行할 것을 오늘도 主唱하고 있는 것을보면 蘇聯과는 不可分の 關係에 있고 이것은 바로 蘇聯과 主從의 關係에 있음은 再言의 餘지가 없다 하겠다.

東方哨所의 굳건한 보루가 世界共產化의 一翼을 擔當하고 있다는 北韓의 自負心과 關聯해보면 그들의 外交政策이 韓半島에서 共產化를 實現하려는 對外的 手段임은 더욱 自明해 지고 있다.

이러한 歸結은 北韓의 外交가 그들의 政策方向을 어디에 焦點를

두고 있는지 쉽게 導出되고 있다.

北韓政權 樹立以來 40 余年間을 中·蘇라는 兩大山脈을 끊임없이 오르내려야 하는 어쩔수 없는 外交行脚을 벌려온 것은 이를 立證해주고 있으며 中·蘇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들 國家들의 影響으로 因해 外交座標가 設定되지 못하고 표류되어온 事例는 北韓의 中·蘇外交와 非同盟 및 UN 活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北韓外交의 理念的 口實을 하고있는 自主路線 展開는 金日成體제의 整備作業에 比重을 둔 體制安定을 위한 강구책이었으나 그들의 對外的 不安定性을 防止하려는데 있었다고 하겠다.

共產勢力的 兩支柱인 中·蘇의 向背를 보아야하는 北韓이 과연 獨自的으로 外交를 遂行할 수 있는나하는 問題는 많은 疑問점이 提起되고 있다.

非同盟圈에서 反帝自主를 내세워 이들 國家들과 쉽사리 迎合할 수 있었던 것은 第3世界 國家들의 反西方感情과 中共의 UN 加入에 따른 國際的 勢力構造의 改編에 影響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非同盟圈의 경제우선主義 추세는 北韓의 政治的 口號인 反帝鬪爭을 퇴색시켰고 北韓의 反植民鬪爭論이 빛을 잃어 갔으며 實利爲主의 國家關係는 北韓에게 出血外交라는 새로운 부담을 안게 하였을뿐 아니라 南北韓間의 競爭的 次元에서도 經濟力量이 미약한 北韓으로서는 더욱 큰 困境에 沒入되고 있는 것이다.

「팔레스타인」이 피의 抗爭을 통해서 失地回復을 위해 世界에 呼所하고 있으나 北韓은 民族解放 鬪爭支援이라는 名分아래 紛爭地域마다 그들이 介入하고 있는것은 理解할 수 없으며 北韓의 暴力革命

輸出은 韓半島의 平和統一外交에 逆行하고 있는 것이다.

UN 加入申請과 同時加入을 試圖하였던 北韓이 韓半島의 永久分斷을 내세워 反對立場을 取하고 UN 에서 共產側案이 통과시 勝利를 외치는 兩面性이 드러나고 있다.

北韓이 主張하고 있는 永久分斷論은 赤化目標를 達成하려는 것으로서 우리의 平和統一을 앞당기기 위한 合理的 方案을 否定하려는 그들의 기도일 뿐이다.

北韓이 提示한 所謂 自主, 親善, 平和의 外交理念은 國際社會에서 自身들의 實體가 드러난 正體를 은폐하고 赤化統一의 障礙요소를 除去하기 위한 戰術的 變身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北韓의 外交가 國際環境에 順應할 수 없다는點과 中·蘇의 두母體가 北韓을 응시하고 있어 이들의 틈바구니안에서 그들 나름대로 궁극적 目標를 達成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다는 歸結이다.

Ⅱ. 北韓의 地域別 外交

1. 北韓의 陣營外交

가. 概 要

北韓의 外交政策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中·蘇에 의해 影響力이 크게 波及되어온 사실을 감안해보면 社會主義 陣營內에서 北韓이 展開해온 外交는 中共과 蘇聯의 關係를 概括해봄으로서 그 運轉을 도출해 낼수 있는 것이다.

政權樹立에서부터 50년까지 철저히 對蘇依存外交를 展開해온 北韓은 48年 6月 유고가 「코민포름」에서 脫退하자 北韓·유고간에 關係가 惡化되었던 事例는 對蘇依存度를 立證해주고 있다.

中共의 韓國戰 參戰을 계기로 「血盟關係」를 設定하고 「후르시초프」의 平和共存政策 및 「스타린」格下등의 變化는 北韓을 中共에 가까이 하는 名分이 되었고 北韓의 中立圈 外交가 태동되는 50年代 中半에까지 中·蘇로부터 經濟支援이 이루어졌다.

62年 10月 「쿠바」事件으로 「修正主義鬭爭」(62.3金日成)이 抬頭되는등 對蘇非難과 함께 蘇聯의 支援이 中斷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自力更生原則(62.3)과 4大軍事路線(62.12)등이 提示케 되었다.

62年 11月 中·印國境紛爭時 中共을 支持하고 나선 北韓은 蘇聯의 支援없이 7個年經濟計劃을 達成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直面하기도 했다.

「후르시초프」실각(64.10)후 「코시긴」首相의 訪北은 蘇聯과의

關係改善에 힘이 되었고 中共에도 홍위병의 김일성 비난 大字報는 對中共關係에서 거리를 멀게하는등 北韓의 對中共非難聲明(67.1.26. 中通)이 發表되는등 관계가 소원화되었다.

여기에서 北韓은 그들外交의 自救策으로 自主路線을 表明하게 되었고 이路線은 中立圈外交에서 自主성을 내세운 關係強化의 戰略으로 活用되어오고 있다.

70年代以後 中·蘇와의 關係에서 양국의 견인역량에 比等한 立場을 取해오면서 정세에 대응하는 신중성을 기해왔다.

80年以後 후계체제에 대한 中·蘇의 인정 獲得은 北韓으로서 大課題이었으며 中共과의 首腦交換의 定例化와 「KAL」사건계기로 蘇聯立場 同調등으로 關係가 긴밀화되면서 中·蘇 共히 父子세습제를 認定하는 立場을 取하기에 이르렀다.

北韓의 陣營外交는 「버마」事件時 唯一하게 親蘇圈을 中心으로 한 몇개의 國家만이 同調하므로써 對共產圈外交의 強化만이 살길임을 再確認하게 되었고 東歐의 協力이 절대 불가결임을 體驗하게 되었다.

서울올림픽을 방해하는데 當面 政策方向을 設定한 北韓은 蘇聯의 協調가 절대적으로 必要하였고 84年 5월에 23年만의 김일성 訪蘇가 實行하기에 이른다.

蘇聯의 對美·中共 戰略의 일환인 「全아시아 安保會議」에 北韓이 적극 同調해 나서는등 蘇聯의 平和戰略에 迎合하여 韓半島의 非核化主張을 強力히 내세우면서 美軍撤收를 겨냥하고 있다.

北韓의 대소경향 추세는 친소권의 非同盟國家들과 방위조약성격의 親善條約을 체결하면서 同盟의 結束을 強化하고 있는 것도 北韓의 陣營

外交政策의 計算에 包含된 이른바 東方哨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戰略的 포석이라 斷定할 수 있다.

나. 對蘇關係

北韓은 政權樹立(48.9.9)直後인 48.10.8 外相 박헌영을 蘇聯에 派遣하여 正式 外交關係를 樹立함과 同時에 經濟文化 關係 協定을 締結하였다.

49.3.4 ~ 4.7 間에는 首相 金日成이 蘇聯을 방문하여 蘇聯과 10 個年 經濟文化協調協定을 締結하는 등 對蘇 一邊倒外交를 展開하였다.

이러한 蘇聯과의 關係는 6.25 南侵을 契機로 더욱 密着추세를 나타냈으며 53年 休戰 以後 金日成은 소위 「戰後復舊 3 個年計劃」 遂行을 위한 蘇聯의 원조를 얻기 위해 53.9.1 ~ 29 間 蘇聯을 訪問하여 蘇聯과 10 億루블 원조협정을 締結하였고 56.6.1 ~ 7.19 間에는 또다시 金日成이 第2次 5 個年計劃에 따른 원조를 얻기위해 蘇聯 및 東歐圈을 巡訪하여 北韓 經濟建設에 必要한 機械 및 資材 設備의 支援을 約束받았다.

57.11.7 에는 蘇聯 10 月革命 40 周年行事に 金日成이 參席하였고 59.2 蘇聯 共產黨 21 次 大會에 金日成이 參席하여 蘇聯과의 連帶性 強化를 力說하였으며 60.9.23 第15次 UN總會에서 「흐루시초프」는 「南韓주둔 外軍 撤收」와 金日成이 提案한 「南北韓 聯邦制」에 대한 支持를 表明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56.2 月 蘇聯 共產黨 20 次 大會時 「흐루시초프」의 「스탈린」格下와 平和共存論이 제기되어 「스탈린」的 獨裁體制를 追求하고 있던 金日成에게는 심히 못마땅하였으나 戰後 復舊에 蘇聯의

經濟援助가 절대적으로 必要한 立場에 直面하였기 때문에 蘇聯에 대한 非難을 삼가한 채 中立態度를 堅持해왔다.

60年代들어 61.5.29 ~ 6.6 까지 蘇聯 副首相 「코시긴」이 北韓을 訪問하여 北韓統一方案을 支持했으며 北韓은 마르크스레닌主義에 立脚한 蘇聯의 平和共存論을 支持하면서 社會主義 진영의 통일단결을 強調하였다.

「코시긴」의 訪北에 이어 61.6.29 ~ 7.10 까지 金日成이 蘇聯을 訪問, 「友好協調 및 相互援助條約」을 締結함으로써 對蘇 同盟關係를 確認하였고 61年 9月 北韓 勞動黨 4次大會에 「코즈로프」를 團長으로 하는 代表團이 參席하는등 對蘇關係는 變함없이 維持되었다.

그러나 61.10月 蘇聯共產黨 22次大會에서 「호루시쵸프」가 「스탈린」格下問題와 平和共存論을 再次 提起하면서 「알바니아」의 反蘇태도를 맹렬히 비난하고 나서자 「스탈린」格下問題에 대해서는 「蘇聯共產黨의 內部問題」라고 하면서 알바니아와의 關係는 金日成의 22次 黨大會 參席 歸還報告를 통해 「忍耐性있는 努力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될 것을 希望」함으로써 同 紛糾에 직접 介入하는 것을 회피하고 中立的 態度를 取할 것임을 公表하였으나 62年 10月 「쿠바事件」과 62年 11月的 中·印國境紛爭에서 對美強硬論을 追求하는 中共을 적극 支持해 나섰고 이에대해 蘇聯은 北韓의 軍事援助 要請을 거절하는 등 對蘇關係는 惡化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은 關係는 64.10月 蘇聯의 政變으로 「호루시쵸프」가 失脚하고 「브레즈네프」가 執權한 것을 契機로 同年 11月 蘇聯 10月革命 47周年 行事に 金一을 派遣하여 對蘇關係 改善을 모색한데 이어

65.2월 「코시긴」首相이 訪北하여 雙方의 軍事同盟과 社會主義 진영간의 공동방위 의무를 再確認하였으며 65.5월에는 崔光을 團長으로 하는 北韓 軍事代表團이 蘇聯을 訪問함으로써 65.5月以後 中斷되었던 軍事援助가 再開되었다.

66.3月 蘇聯 共產黨 23次 大會에 中共이 參席을 拒否한데 反해 北韓은 최용건이 參席하여 越南戰에 대한 共產陣營의 統一된 共同行動을 強調하여 中共을 間接非難하였다.

69.5월에는 蘇聯 간부회의 회의의장 「포드고르니」가 北韓을 訪問하여 「EC-121」기 격추사건에 대한 대처방안을 論議하였고 同年 9月과 12月에는 北韓의 최현 및 박성철이 각각 蘇聯을 訪問하여 經濟·軍事援助의 계속 支援을 要請하면서 雙方關係 強化를 다짐하였다.

70.4.19 레닌탄생 100周年 記念行事에 北韓 최고인민회의 常任委員長 최용건이 參席하여 雙方 關心事를 논의하였고 70.4.24에는 蘇聯 軍 총참모장 자하로프가 北韓을 訪問하였고 5月에는 北韓軍 총참모장 오진우가 蘇聯을 訪問하여 軍事的 支援 問題를 協議하였으며 8月4日에는 유엔대사 말리크가 北韓을 訪問하여 유엔에서의 北韓 支援問題를 協議하였다.

71.7.6 마즈로프 蘇聯 第1副首相이 北韓을 訪問, 相互防衛條約의 5年 延長을 確認하고 71.9月에는 카루세프 蘇聯 共產黨 秘書가 北韓을 訪問하여 北韓과의 유대강화를 다짐하였다.

73.2月 北韓 勞動黨 國際部長 김동규가 蘇聯을 訪問, 브레즈네프와 회담한 데 이어 同年 3月에는 외교부장 허담이 蘇聯을 訪問하여 그

로미코 外相과 越南戰에 따른 蘇聯의 對아시아 政策과 蘇聯의 對北
韓 經濟·軍事支援 問題를 協議하였으며 73.6 金日成의 소위 「平和
統一 5大강령」에 대해 蘇聯則은 「조선과 극동의 긴장상태를 緩和
하며 平和統一을 위한 重要的 發言」이라고 언급하여 적극적인 支持
立場을 나타냈다.

한편 北韓은 蘇聯이 73.8월 모스크바에서 開催된 하계 유니버시아
드 大會에 韓國을 參加시킨데 대해 同 大會의 參席을 거부하였고
79年 9月과 10月에는 韓國의 레슬링, 역도선수 및 국제회의 參席
代表들의 蘇聯 入國 許可에 대해 못마땅한 態度를 보이면서 蘇聯側
에 間接的인 불만을 表示하였고 蘇聯側도 75.5月 金日成의 中共訪問
에 따라 金日成의 蘇聯 訪問 要請을 묵살하는 등 미묘한 關係를 드
러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76.11.6 金日成은 蘇聯 10月革命 59周年 祝賀 電文에서
「蘇聯人民들이 이룩한 모든 成果를 열렬히 祝賀하며 社會主義 偉業
의 勝利를 위한 雙方的 親善 強化」를 強調하였고 76.12.18 브레즈
네프 70回 生日 祝電을 통해서 「雙方 親善 協調關係가 더욱 強
化 發展되기를 希望」함으로써 적극적인 對蘇接近態度를 나타내었다.

이어서 77.1월에는 北韓 總理 박성철이 蘇聯을 訪問하여 코시긴 首
相과 會談을 갖고 雙方間 政治·經濟 및 其他分野에서의 協力 증진
문제를 討議하는 등 양국 關係는 正常化되었다.

78.1月 蘇聯 共產黨 정치국원 크나예프를 團長으로 하는 고위대표단
이 北韓을 訪問하였고 同年 2月에는 北韓 人民武力部長 오진우가
蘇聯을 訪問하여 親善 增進 方案 및 軍事支援 問題를 協議하였으며

76.6월에는 北韓 勞動黨 國際部長 金永南이 蘇聯을 訪問하였다.

한편 79.8.15 解放 34 周年과 關聯하여 브레즈네프와 金日成은 祝賀 電文을 통해 雙方間의 친선우의 不變과 協力關係 增進을 다짐하는 등 雙方關係는 더욱 強化되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北韓은 79.2 中共·베트남 紛爭 및 蘇聯의 아프가니스탄 侵攻에 대해서는 公式的인 態度 表明을 留保하는 등으로 中·蘇가 直接 介入된 國際問題에는 關與치 않는 신중한 態度를 取하였다.

80 年代들어서도 北韓과 蘇聯은 緊密한 關係를 계속 維持하여 80.10 北韓 勞動黨 6次黨大會에 蘇聯 경축사절로 모스크바市 제1서기겸 政治局員인 그리신이 參席하였고 81.2 에는 北韓 總理 李鍾玉이 蘇聯 共產黨 26次大會에 參席하여 蘇聯의 그동안 北韓에 베풀어준 各種 支持와 援助에 感謝를 表示하면서 雙方間의 緊密한 유대를 더욱 強化할 것을 呼訴하였다.

한편 蘇聯은 브레즈네프의 26次 黨大會 基調演說을 통해 北韓의 統一方案에 대한 支持와 함께 對北韓關係 深化 努力을 力說하였다.

이러한 關係는 82 年들어서도 北韓 副總理 허담, 김복신 등의 蘇聯을 訪問하고 蘇聯도 각종 代表團을 北韓에 派遣하여 經濟協力 增進 및 親善關係 強化努力을 展開하였으나 82 年 後半들어 82.9 月 金日成의 中共訪問을 통한 北韓의 對中共關係 緊密化 追求와 82.10 月 蘇聯 官吏의 訪韓 등으로 雙方 不協和 關係가 露呈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不協和 裏面에는 金正日後繼 世襲體制에 대해 蘇聯이 81.12 月 平壤駐在 蘇聯大使 클리올린이 「金正日이 自然改造事業을 직접 지도

하고 있다」고 發言한 以後 金正日에 대한 學論을 삼가하고 있고 캄보디아 問題와 關聯하여 蘇聯의 82.3 「시하누크」의 平壤訪問에 즈음해서 그를 「反革命家 頭目的 한사람」이라고 非難하는 등 雙方 間 異見이 內在하고 있었다.

이같은 狀況下에서 蘇聯이 北韓의 對中共關係 緊密化 추세를 警戒 하면서 82年 9月 金日成의 中共 訪問에 대해 냉담한 反應을 나타낸 가운데 金日成의 訪中 事實을 北韓側의 公式報道를 引用하지 않고 中共의 新화사 통신을 引用하여 단 한차례 報道하였으며 82.10월 에는 蘇聯 타스通信 記者 및 박물관 局長이 최초로 訪韓하는 등 對北韓 견제 態度를 시현하였다.

한편 北韓은 蘇聯人의 訪韓에 대해 朝總聯 機關紙 朝鮮新報를 통해 「理解할 수 없는 괴이한 상종」이라고 지난 60年代 以後 최초로 격렬한 對蘇 非難을 展開하는 한편 82.11.7 蘇聯 社會主義 10月 革命 65周年 記念行事 등 北韓內의 對蘇關係 行事를 過去에 비해 比重을 낮추어 進行하는 등 雙方關係는 60年代 後半 以來 그 어느때보다도 원만치 못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82.11월 브레즈네프가 死亡하고 안드로포프 新體制가 登場하게 되자 브레즈네프 장례식에 副主席 朴成哲이 吊問使節로 參席한데 이어 82.12월에는 總理 이종욱이 再次 蘇聯을 訪問하였고 83年 들어 雙方 首腦가 各其 駐在國 大使를 통해 친서를 交換하여 相互 關係 發展을 다짐하였으며 83.2月 蘇聯 당국제부 부부장 「스미르롭스키」가 北韓을 訪問하고 83.5월에는 副總理 「딸라진」이 北韓을 訪問하는 등 主要 人物의 交換 訪問을 통해 正常關係 回復을 모색해 왔다.

한편 83.9月 蘇聯의 KAL機 격추사건에 대해 北韓은 「美帝의 造作에 의한 侵略的 도발사건」이라고 蘇聯은 83.10月IPU 서울총회에 不參함과 同時에 北韓의 버마사건에 대해서도 「韓國이 同 事件을 韓半島 情勢 變化에 利用하고 있다」고 하여 北韓을 두둔하는 등 雙方關係는 활발화 추세를 시작하였다.

83.10月 北韓 副總理 孔鎭泰가 蘇聯을 訪問하여 「軍事 및 經濟支援」問題를 協議하였고 84.2월 안드로포프 死亡과 關聯한 吊問行事를 82.11월 브레즈네프 死亡時보다 크게 進行하였으며 이와 함께 84.2.21 駐蘇 北傀大使가 主催한 金正日 生日行事에 蘇聯 副外相 「카피차」가 최초로 公式 參席하는 등 蘇聯이 金日成 父子世襲體制를 認定하려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함으로써 雙方 共히 緊密한 協力 關係로의 發展을 模索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雙方 關係는 84.5月 23年만에 이루어진 金日成의 蘇聯 訪問을 契機로 더욱 鞏固化되었다.

金日成 訪蘇 以後 金日成의 訪蘇 結果가 具體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는 바 84.6月 北韓 軍事代表團이 蘇聯을 訪問, 蘇聯의 對北韓 軍事支援問題를 論議하였고 84.11月에는 蘇聯 副外相 카피차가 北韓을 訪問하여 長期間 滯留하면서 「國境線 通過에 관한 條約」을 假調印하였고 「85~86年度 外交分野 交流計劃書」를 締結하여 外交協調 基盤을 마련하였다.

이를 土臺로 85年들어서는 더욱 눈에 띄게 雙方 關係 緊密化 現狀이 나타났는 바 85.4月 金永南 外交部長이 蘇聯을 訪問하여 84.11月 카피차 訪北時 學論되었던 「국경선 통과에 관한 條約」과 「영사協約」

을 正式 締結하고 雙方 外相間 共同聲明을 통해 「韓·美·日間의 나토型 軍事同盟 造作에 對處하여 雙方 友好協調 및 援助條約의 確固한 履行」決議를 表明함과 同時에 北韓의 國會會談 支持와 南北韓 交叉承認 및 UN 同時加入 反對 立場에 見解를 같이 하였다.

그리고 85.5月 蘇聯의 對獨戰勝 40 周年과 關聯, 北韓은 黨 및 政府 代表團과 軍事代表團등 8 個 敬축사절단을 派遣하였고 雙方 戰鬥機의 交換 訪問을 實施하였다.

또한 85.8月 解放 40 周年과 關聯해서는 蘇聯 第1 副首相 「알리예프」가 北韓을 訪問 예우를 表示하였고 北韓 總理 姜成山은 蘇聯의 「解放者 援助者로서의 役割」을 적극 強調하였다.

85.12 姜成山 總理가 蘇聯을 訪問하여 「86 ~ 90 年間 무역 및 經濟協調 協定」, 「經濟 및 技術協調 協定」, 「原子力 發電所 建設 協調協定」등 3 個의 協定을 締結함으로써 蘇聯의 지속적인 對北韓 經濟, 技術 支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北韓·蘇聯關係의 緊密한 추세는 86 年에도 계속되어 86.1 蘇聯外相 「세바르드나제」의 北韓訪問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蘇聯 外相으로서의 최초의 北韓 訪問이며 이를 계기로 雙方 外相 會談의 定例化를 통해 緊密關係를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北韓과 蘇聯은 각각 蘇聯의 「핵군축안」등 對美 平和戰略과 北韓의 「韓半島 비핵지대화」제안을 적극 支持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86.10月에는 金日成이 또다시 蘇聯을 訪問하여 「고르바초프」와의 交驩을 통해 雙方 立場을 再確認 다짐하는 등 그어느때 보다는 緊密한 關係를 維持해 나가고 있다.

다. 對中共關係

北韓은 1949.10.6 中共과 外交關係를 樹立하고 蘇聯과 野合하여 韓半島에서의 武力統一을 企圖하고 1950.6.25 南侵을 開始하였다.

6.25가 발발하자 中共 外交部長 주은래는 50.7.6 성명을 통하여 「유엔군의 韓國戰 參戰은 朝鮮問題에 대한 간섭이며 世界平和에 대한 유린」이라고 하여 北韓을 擁護해 나섰다.

50.10.25 中共은 「人民支援軍」이란 名目下에 韓國戰에 直接 介入함과 同時에 의약품과 生活必須品등을 供給하였고 53.4月에는 北韓 副首相 鄭一龍이 中共을 訪問, 北韓이 自立할때까지 經濟 및 技術援助를 제공키로 합의하였다.

이와같이 中共은 戰爭中에 北韓에 대한 人的, 物的 支援을 強化함으로써 北韓에 대한 確固한 基盤을 構築하게 되었다.

休戰直後인 53.11月 金日成은 中共을 訪問하여 動亂中 中共의 支援에 感謝를 表示하고 「10個年 經濟·文化技術協定」을 締結하여 中共의 北韓에 대한 戰後復舊 支援을 約束받았다.

이와함께 中共은 戰爭中에 北韓에 支援해 준 一切의 資金과 物資를 전부 무상으로 할 것을 認定하고 54~57年間 無償援助를 제공키로 함으로써 相互 유대는 더욱 強化되었다.

58.2月 주은래가 北韓을 訪問하여 58年 以內에 中共軍을 段階別로 完全히 撤收할 것을 합의하고 58.10.26에는 北韓 地域에서의 中共軍의 完全 撤收를 公布함과 同時에 UN軍의 撤收를 主張하였다.

58.9月에는 北韓 副首相 李周淵이 中共을 訪問하여 59~62年間「相互 重要物資供給에 관한 協定」과 「차관 提供協定」을 締結하여 中

共이北韓의 5個年計劃期間에 3억원의 無償援助와 차관을 提供키로 約束하였으며 59.10.1 中共 創建 10周年 記念式에 金日成이 參席 하는 등으로 中共으로부터의 經濟援助 獲得에 注力하였다.

60年代 들어서 雙方 關係는 蘇聯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格下와 平和 共存路線 提示에 따른 中·蘇紛爭이 表面化됨에 따라 密着되기 始作 하였다.

61.7.11 金日成은 蘇聯 訪問後 中共을 訪問하여 中共과 「友好協 調 및 相互援助 條約」을 締結하고 62年부터는 더욱 中共에 接近 하였다.

즉, 62.11月 中·印 國境紛爭에 대해 北韓은 蘇聯의 中立的 態度 에 反하여 中共의 立場을 적극 支持해 나섰고 蘇聯共產黨 22次 大會를 契機로 蘇聯과 알바니아가 國交를 단절하였으나 北韓은 알바니 아와 親善을 強化하는 등 中共 추종 노선을 表面化하였다.

이밖에도 63.8월에는 中共의 國際核軍縮會談提案을 支持하면서 中共 의 核實驗에 대하여 「帝國主義者들에 莫大한 打撃으로 되며 社會主義 國家 人民들에게 커다란 鼓舞로 된다」고 찬양하는 등 中共을 적극 擁護해 나섰으나 64.10月 蘇聯의 브레즈네프 執權을 계기로한 北韓의 對蘇 接近 以後 점차 냉각되기 시작하였다.

66.8月 北韓은 소위 「自主路線」을 천명하고 越南戰에 대한 中共 의 共產陣營 共同行動 反對를 「교조주의」로 非難하기 始作하였고 中共은 이때 文化革命 期間中에 있었으며 67.1.20 紅衛兵 벽보를 통해 「北韓의 김광협이 최용건에 의해 체포되었다」고 發表하여 北韓 을 非難하였고 이에대해 北韓은 67.1.26 中央通信社 聲明을 통해

「전혀 무근거한 날조」라고 반박하는 등 關係가 惡化되기 시작했다.

以後에도 北韓과 中共은 相互 「수정주의자」라는 非難을 계속하였으나 실질협력 관계는 점차 擴大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68.1.28 中共은 北韓의 「프예블로」호 납치사건을 「자위적 조치」라고 하여 北韓을 支持해 나섰고 이어서 3月 4日에는 中共 對外貿易副相이 北韓을 訪問하여 통상협정을 맺었으며 68.9月 및 68.10月 北韓政權樹立 20周年과 中共 政權樹立 19周年과 關聯하여 金日成과 周恩來가 「雙方 關係 發展」을 다짐하는 祝電을 交換함으로써 雙方 關係 正常化 契機를 마련하였고 70年代들어서면서 70.4月 周恩來의 北韓 訪問으로 雙方關係는 密着하기 시작하였다.

同 訪問에서 雙方은 共同聲明을 통해 「反帝共同鬭爭」을 다짐하면서 美·日 協力에 對處하기 위한 共同紐帶를 再確認하였다.

71.7月에는 朝·中 友好協調 및 相互援助 條約 締結 10周年과 關聯하여 中共 副總理 李先念과 北韓의 김중린이 相互 訪問하여 雙方 血盟關係를 다짐했으며 72.2月 닉슨大統領의 中共 訪問「共同聲明」에 대해서는 이 聲明을 原則적으로 환영하면서도 美·中共間의 급진적인 接近으로 인한 雙方關係 惡化를 우려하는 態度를 나타내었고 72.9月 日·中共 국교수립에 대해서는 兩國關係 正常화를 환영하면서도 「이웃國家間的 적대關係를 원치 않으며 그들이 선린關係를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하여 中·蘇間 紛爭 解消를 希望하는 立場을 보였다.

한편 中共은 對美·日 接近이 進行되는 가운데 72.12 外相 희봉비를 北韓에 派遣하여 北韓의 統一政策 支持 및 反帝共同鬭爭을 內容으로 하는 共同聲明을 發表하여 北韓과의 변함없는 우의를 다짐하

였으며 73.2月에는 北韓 外交部長 허담이 中共을 訪問하는 등으로 雙方 유대를 強化하였다.

특히 75.4月에는 印支半島의 共產化에 鼓舞된 金日成은 中共을 訪問, 演說을 통해 「南朝鮮에서 革命이 일어나면 南韓人民들을 적극 支援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만약 敵들이 戰爭을 일으킨다면 잃을 것은 軍事分界線이고 얻을 것은 祖國의 統一」이라고 호언하는 등으로 武力南侵에 대한 中共의 支持를 誘導하였으나 기대한 만큼의 支持는 얻어내지 못하고 經濟·軍事部問의 援助와 政治 外交的 支援을 얻어내는데 그쳤다.

그리고 北韓은 中共內部問題와 關聯하여 76.10月 中共創建 27周年과 關聯한 總理 朴成哲의 祝電에서 「鄧小平의 수정주의 路線을 비판 右傾變案風에 반격을 가하는 鬭爭을 深化시켜야 한다」고 主張하였으나 鄧小平이 76年 4月 天安門 事件을 契機로 復權하자 지난 날 非難하던 態度에서 突變하여 「鄧小平의 復權을 祝賀하며 전적인 支持를 表示」하는 金日成의 축하인사를 傳達하는 등 化국봉·鄧小平을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權力體制에 接近하는 態度를 보였다.

이에따라 78.5月 中共 당주석 化국봉이 北韓을 訪問, 駐韓美軍 撤收 및 北韓의 統一路線에 대한 強力한 支持와 함께 雙方 貿易增進과 油類 追加支援 등 經濟 支援을 약속하였으며 78.9月에는 中共 副首相 鄧小平이 北韓을 訪問하여 北韓의 立場을 적극 支持해 나섰다.

한편 北韓은 美·中共 수교에 환영의 의사를 表示하면서 中共의 베트남 侵攻에 대해 침묵을 지키다가 79.1月 베트남의 캄보디아 侵攻에 대해서는 「지배주의 行動」으로 非難함으로써 中共의 對外路線

에 적극 同調하는 자세를 드러내었다.

한편 80年代 들어서 北韓은 中共의 鄧小平 體制가 實用主義 路線 및 對美關係 擴大發展을 追求함에 따라 이의 影響이 北韓에 과급될 것을 警戒하여 80.10月 6次 黨大會에서 「帝國主義에 대한 無原則한 妥協을 反對」한다고 言及하는 등 一時 不協和를 야기하기도 하였으나 中共의 實用主義 路線이 다소 緩和되고 美레이건 行政府 出帆以後 對美接近 政策이 後退함에 따라 81.10月 金日成이 「中共 黨路線이 正確하고 指導部가 團結되어있다」고 言及하는 등 中共에 대한 警戒心을 풀고 中共의 立場을 理解하는 姿勢를 보였다.

中共 역시 對蘇戰略上 北韓과 不便한 關係를 더 以上 방치하기가 困難한 立場에서 81.10月 국방상 경표가 中共駐在 北韓大使館 主催 宴會 演說에서 「金正일을 위한 祝杯」를 제의하는 등 金日成 父子 世襲體制에 대해 蘇聯보다 먼저 認定하는 態度를 나타내었다.

이와함께 81.11月 北韓의 黨국제부장 金永南의 中共訪問에 이은 81.12月 中共 首相 조자양의 北韓 訪問등을 통해 그간 露呈되어왔던 雙方 指導體制 및 政策 指導路線에 대한 異見을 調整하고 協力關係 強化 基盤을 마련하였다.

82年 들어서는 中共의 實質적인 對北韓 經濟 및 軍事支援이 增大되는 가운데 雙方의 對外路線에서도 北韓이 蘇聯의 非難에도 不拘하고 82.3月 시하누크를 平壤에 초청하는 등 「캄보디아 反베트남 聯立政府」支援에 共同步調를 取하였다.

특히 82.4月 金日成 70回 生日 祝賀를 名目으로한 鄧小平·호요방의 北韓 訪問에 이은 82.9月 金日成의 中共 訪問을 통해 北韓은

「中共의 現代化 政策은 全적으로 正當한 政策」이라고 하였고 中共은 「金正日是 勞動黨의 卓越한 領導者이며 金日成 後繼者」임을 認定하는 등으로 中共의 實用主義 政策 및 北韓의 世襲體制와 관련한 雙方間의 異見을 해소함과 同時에 雙方 최고지도자간의 政策的 次元에서의 協力強化와 關係發展을 다짐하였다.

이같은 雙方 首腦의 交換訪問 以後에는 相互 人事交流를 大幅 擴大하면서 政治·經濟 高位級 人事 交流를 強化하여 相互 協調의 幅을 擴大해 나가는 가운데 83.6月에는 金正日이 海外訪問國으로서는 최초로 中共을 訪問하여 등소평·호요방 등 中共 指導層과의 直接 交驩을 통해 世襲體制에 대한 支持를 保障받았으며 83.9月 中共 全人大 상무위원장 팽진이 北韓을 訪問하였을 때 金日成은 「中共과의 親善強化가 北韓 對外政策의 基本」임을 力說, 對中共 親善友好關係를 다짐하였다.

84年들어서는 84.2月 北韓 外交部長 金永南이 外交部長 就任 以後 최초의 海外訪問國으로 中共을 訪問, 中共指導層과의 面談을 통해 「3者會談」에 대한 確固한 支持를 保障받았고 84.5月 中共 당주석 호요방의 北韓訪問과 84.11月 金日成의 中共 訪問등 年1~2回의 雙方 首腦 交換 訪問을 定例化하여 雙方 유대관계의 영원 不變성을 다짐하였다.

85.3月 中共 당주석 호요방의 신의주 訪問도 이러한 수뇌 교환 訪問 정례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특히 北韓·蘇聯間의 密着에 따른 雙方間의 立場을 調整함과 동시에 85.5月 中共 어뢰정 事件에 따른 韓·中共間의 接觸 등 韓·中共 交流問題에 대

한 見解 調整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호요방과의 會談에 金正日이 參席함으로써 雙方 友好關係를 再 確認하고 金正日 後繼體制에 대한 中共의 確固한 支持를 内外에 과 시하였다.

또한 北韓과 中共은 85.10.25 「中共軍 韓國戰 參戰 35 周年」 記念行事를 과거 어느때보다도 크게 比重을 두어 進行함으로써 雙方 間 血盟關係를 再確認 다짐하였다.

한편 北韓은 85.8 月 約 500 名으로 構成된 「朝鮮青年親善代表團」을 中共에 派遣함과 同時에 85.11 月에는 中共과 「영사협정」을 締結하는 등으로 蘇聯과의 關係強化에 相應하는 對中共 關係 維持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동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같은 事實은 86.10.3 中共 國家主席 李先念이 金日成의 蘇聯訪 問(10.22) 直前に 北韓을 訪問하여 大대의인 환영행사로 雙方間的 緊 密關係를 과시한데 서로 잘 나타나고 있다.

2. 北韓의 非同盟 外交

가. 概 要

54 年 「아세아 5 個國 首相會議」는 「亞細亞·아프리카會議」 (55.4)를 胎動시켰고 新生國의 關心集中과 함께 이들 國家들의 團 結力을 結集시킬수 있는 求心點이 되었다.

反帝, 反植民主義 價値는 亞·阿지역 新生國에 호응되는 추세에 있 을뿐 50 年代 北韓의 中立圈外交란 사실상 不在하였을 뿐이다.

北韓은 第1次 非同盟頂上會議(61.9)와 關聯하여 民族解放 鬪爭支持를 對外政策의 原則임을 強辯하면서 非同盟圈 進出의 基盤을 마련하기 始作하였다.

北韓의 非同盟 進出 겨냥은 亞細亞·아프리카 二大陸에서 「라틴아메리카」를 追加하여 外交領域을 擴大(61.9 逆大會)함으로써 이른바 對外政策의 중요한 高지로 採擇한다.

金日成(65.4)과 「스카르노」(64.11)의 相互 訪問은 亞細亞地域에서 北京→자카르타→프놈펜→平壤을 잇는 所謂 反美共同鬪爭戰線을 構築하므로써 反帝 反植民鬪爭에서 主導的 役割을 確保하려는 움직임이 胎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北韓은 非同盟加入(76.8)과 더불어 新國際經濟秩序 樹立等 當면한 非同盟戰略을 提示하고 이를 주도하기 위한 非同盟圈에 대한 首腦外交를 적극 展開한다.

北韓이 調整委員國에 피선되면서 非同盟農業討論會를 平壤에서 開催하고 「平壤宣言」을 採擇하는등 「남남수뇌자회의」소집등을 主張하면서 非同盟圈의 經濟重視政策에 편승한 實利우선 政세추이에 영합하였다.

第7次 정상회의를 契機로 北韓의 頂上會議 유치실패와 서울올림픽 共同主催에 대한 非同盟圈의 支持獲得 작전등을 北韓에게 非同盟戰略의 차질을 가져오게 하였고 실질협력 중심의 非同盟外交 展開는 그들에게 많은 負擔을 加중시키고 있다.

나. 非同盟 外交

北韓이 非同盟圈에 대해 關心을 갖기 시작한 것은 55年 4月

반동會議 開催以後로 볼 수 있다.

그 以前까지 北韓은 東·西 兩大 陣營으로 對立된 냉전체제속에서 蘇聯의 立場만 支持했을뿐 第3世界를 認識치 못했다.

당시 北韓은 非同盟 中立主義를 제창하고 있는 新生獨立國들을 機會主義的이고 브루조아 階級 利益에 寄生하는 反動國家라고 非難하였다.

그러나 北韓은 반동會議 以後 56年 4月 勞動黨 3次大會를 契機로 第3世界 國家들과의 關係 設定에 눈뜨기 시작하여 同大會에서 金日成은 반동會議를 肯定的으로 評價하면서 「相異한 社會制度를 가진 나라들의 平和的 共存에 대한 레닌의 原則을 堅持하며 自主的인 相互 尊重과 平等權에 立脚하여 世界모든 平和愛好 國家들과의 政治的, 實務的 連繫를 맺도록 努力하겠다」고 言及한 데 이어 57年 12月에는 아프리카-아시아 連帶性 會議에 參席하는 한편 印尼, 印度, 시리아 등 5個國과 貿易協定을 締結하였으며 58年 9月에는 알제리와 58年 10月에는 기네와 非共產圈과는 最初로 外交關係를 樹立하였다.

61年 9月 유고의 베오그라드에서 25個國 首腦들이 參席한 가운데 第1次 非同盟 頂上會議가 開催되면서 非同盟 運動이 公認化된 活動原則을 가지고 組織化된 政治勢力으로써 浮上하게 되자 金日成은 61年 9月 勞動黨 4次大會 事業總和 報告를 통해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모든 獨立된 國家들과 友好的 關係를 發展시키는 것이 對外政策의 重要한 目標이며 따라서 앞으로 第3世界 國家들과의 外交를 強化할 것」임을 公言하였다.

이러한北韓의立場은 62年 10月 最高人民會議 第3期 1次會議에서 再確認되었으며 64年 2月 勞動黨 4期 8次 全員會議에서는 「國際革命力量」중에 第3世界를 包含시키고 第3世界에 接近하는 理論的 根據를 提示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北韓은 60年代末까지 非同盟圈을 對象으로한 緊요한 努力을 경주한 結果 아시아, 中東, 아프리카 地域의 35個國과 外交關係를 樹立함으로써 나름대로의 外交成果를 거두었다.

또한 73年 9月 알제리에서 開催된 第4次 非同盟 頂上會議에서는 北韓側의 要求로 韓國에서의 UN軍 撤收, 언커크解體, 南北韓 單一國號下의 UN加入등 韓國 關係 決議가 採擇됨으로써北韓은 최초로 第3世界에서의 外交的 勝利를 얻어냈다.

75年 3月 쿠바의 아바나에서 열린 非同盟 調整委員會 外相會議에서 北韓의 非同盟 加入 問題가 최초로 提起되었고 同年 8月 페루의 리마 外相會議에서 北韓은 유고, 쿠바, 알제리 등 非同盟 左傾 國家들의 積極적인 支援을 받아 非同盟 會議의 正會員國으로 加入하였다.

北韓은 78年 7月 유고 베오그라드 全體外相會議를 앞두고 黨·政 聯合會議를 開催하고 同 會議 및 非同盟에 대해 「統一과 團結」을 호소하는 한편 同 會議에 參席해서는 韓半島 問題와 關聯하여 종래와 달리 유연한 內容의 결의안을 採擇케 하는 등 非同盟 政策을 再整備 強化하였다.

또한北韓은 79年 9月 쿠바 아바나開催 第6次 非同盟 頂上會議를 앞두고 同年 7月 18日 黨·政 聯合會議를 開催하고 非同盟

國家들간에 조성된 不和와 紛爭, 衝突을 예방하고 調整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안을 내놓는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非同盟 外交를 展開하여 同 6次 非同盟 頂上會議에서 調整委員國으로 피선되었다.

北韓은 6次 非同盟 頂上會議에서 調整委員國으로 피선된 것을契機로 非同盟外交를 통한 對韓優位를 確保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活動을 展開하였으나 81年 2月 印度 뉴델리에서 開催된 非同盟 外相會議에서 최초로 韓國問題 決議案 採擇이 좌절되었으며 82年 6月 쿠바, 아바나 開催 非同盟 外相會議에서는 北韓이 提議한 一方的主張을 反映치 못한채 수정된 韓國條項을 採擇하는데 그쳤다.

同 外相會議에서 北韓은 非同盟運動強化 方案으로 經濟, 技術的 協調 強化를 위한 획기적인 對策으로서 「南南協調를 위한 非同盟 및 開途國의 首腦者會議」召集을 제의하였다.

北韓은 83年 3月 第7次 頂上會議(印度 뉴델리)를 앞두고 開催한 黨·政 연합회의(83年 2月)에서 新國際經濟秩序 樹立을 위한 南南 首腦者會議 召集의 必要性을 再強調하고 第7次 非同盟 頂上會議에서는 「南南協力頂上會議 開催를 위한 首腦級 및 閣僚級會議」開催를 促求하였다.

이와함께 金日成은 83年 6月 페루 人民革命黨 代表團 및 83年 11月 루마니아 共產黨 機關紙 「쓰꾼베아」와 會見時 「新國際經濟秩序를 세우기 위한 가장 效果的인 方途는 南南協調 實現뿐이며 이의 적극적인 조치로 南南首腦者會議의 早期 召集이 切實히 必要하다」고 強調하였다.

또한 北韓은 84年 3月 金忠日 外交部 副部長을 團長으로 하는

外交使節團을 非同盟 主導國인 印度, 유고, 쿠바, 알제리등에 派遣하여 同 首腦者 會議의 平壤開催에 대한 支持를 要請하고 82年 6月 以後 第3世界의 30餘個國 首腦를 平壤에 招致하여 이의 支持 護得에 注力한 結果 이디오피아, 가이아나, 루완다 등 15.個國으로부터 支持 約束을 받았다.

이같은 끈질긴 努力을 바탕으로 하여 84年 10月에는 金永南 外交部長이 뉴욕 開催 非同盟 外相會議에서 「南南協力에 關心있는 非同盟 및 開途國 頂上會議 開催에 관한 커뮤니케」라는 題下로 同會議을 85年 9月 平壤에서 開催한다는 內容의 文書를 公式文書로 提起하려 試圖하였으나 호응도가 극히 적어 좌절되었다.

85年 들어서도 北韓 非同盟 外交는 여러가지 좌절을 겪으면서 소기의 目的을 달성치 못하는 가운데 이의 돌파구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는 바 85年 4月 인도네시아에서 開催된 「반동會議」 30周年, 記念會議에서 北韓은 共同宣言文에 韓半島問題를 包含시키려 획책하였으나 失敗로 돌아감으로써 非同盟運動을 政治적으로 利用하는데 注力해왔던 非同盟 外交 戰略에 커다란 차질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北韓은 85年 9月 앙골라에서 開催된 非同盟 全體 外相會議에서 종래부터 推進해온 第8次 非同盟 頂上會議의 平壤 유치에 失敗하였을 뿐 아니라 한반도문제 決議案 採擇에서도 「7.4 共同聲明에 의한 平和統一努力을 支持한다」고 言及함으로써 그들이 推進해온 88 올림픽 共同主催 支持 條項 挿入 企圖는 좌절되었다.

한편 北韓은 85年 들어 非同盟 國家들을 對象으로한 首腦 招請 外

交에 注力하였는 바 85年中 「니에레레」탄자니아 大統領(85.8), 「무가베」짐바브웨 首相(85.8), 「바르바르」말타 大統領(85.8) 등 10餘個國 首腦들이 平壤을 訪問하였다.

北韓은 이러한 頂上外交를 통해 第3世界 國家들에 대한 對韓優位를 계속 確保함은 물론 「南南首腦者會議」의 平壤開催 實現과 88올림픽 共同主催에 대한 支持 擴散등을 企圖하면서 金日成과 金正日의 第3世界圈에서의 影響力 增大도 아울러 노리고 있는 것이다.

86年 들어서 北韓은 짐바브웨에서 開催되는 第8次 非同盟頂上會議(86.9)에 對備하여 86年 6月 黨·政 聯合會議를 開催하고 6個項의 主要 鬭爭方向을 提示하고 同會議 韓國條項에 중래의 美軍撤收主張 以外에 韓半島의 非核化 및 88올림픽 共同主催등을 包含하는 強力한 韓國條項·採擇을 企圖하는 한편 88年 非同盟 外相會議의 平壤誘致를 強力히 推進하기 위해 부주석 朴成哲과 外交部長 金永南등을 위시한 大規模 代表團을 派遣하여 다각적인 外交努力을 展開하였으나 目的을 達成치 못하였다.

즉 韓國條項에 대해서는 「韓半島 政勢不安에 대한 우려 표명과 南北對話 환영, 外國軍의 撤收」등으로 83年 뉴델리宣言과 비슷한 水準에 그침으로서 北韓의 의도는 좌절되었으며 88外相會議 開催地도 「키프러스」로 결정됨으로써 第8次 非同盟 頂上會議에서의 北韓의 企圖는 完全히 霧散되고 말았다.

理念이 퇴색된 非同盟圈의 追求는 自國의 利益이 수반되는 實利에 關心을 集中시키고 있으며 여기에 北韓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느냐에 따라 그 結果가 나타나게 될것이다.

3. 北韓의 對西方 外交

가. 概 要

北韓의 西方外交를 診斷하는데 時期的 區分과 政策導出에 있어 70年以前까지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

政權樹立初期에서부터 50年代까지 中·蘇를 비롯한 陣營外交 위주에서 新生國의 발언권 強化와 함께 非同盟圈에 눈을 돌리고 理念外交 展開가 西方의 浸透를 제어하는 要素가 됨으로서 北韓의 西方外交는 70年以後 韓半島周邊國의 關係改善이나 影響力 增大에 따른 關心에서부터 出發해야 할 것이다.

美·中共의 關係改善과 美·蘇의 平和共存追求 그리고 日·中共의 正常化등은 北韓을 이곳으로 눈돌리는데 充分하였다.

이러한 國際조류의 흐름은 北韓이 情勢에 영합해야 한다는 유연外交의 轉換이 입증하고 있다.

國際情勢에 편승하기 위한 柔軟戰術의 전환(71.11 黨全員會議)은 「모든 자본주의 國家들과 外交關係를 樹立할 용의」가 있음을 再強調(72.12 總理 김일)한데서 分明히 나타나고 있다.

西方과의 關係正常화가 「帝國主義와의 妥協」이 아님을(68. 김일성) 強調한 北韓이 正常關係를 主張하고 나선 이면에는 外交力 伸張을 통한 國際的 進출을 圖謀하고 나아가 韓國의 支援力量을 弱화시키려는게 戰略的 포석이 있음을 재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北韓이 西方圈에 대해서 比較的 늦게 關心을 가졌으나 自由民主體
制라는 제약 없는 울타리를 浸透하는데는 우리의 對共產圈 關係改善
보다 용이하다는 점에서 注目을 돌릴 必要가 있다.

自力更生의 限界에 부딪친 北韓이 西方과의 交流를 絶실하게 갈구
하는 立場에서 西方領域은 이제 外交政策의 큰 比重을 차지하게 되
었다.

北韓의 一大變革的 政策變化인 經濟 開放政策 推進과 함께 西歐地
域 一部 國家들의 社會黨 執權과 때를 같이하여 對西歐 外交를 積
極化 하고 있는것도 눈에 띄게 活潑하다.

종래 民間外交의 일환으로 展開해오던 活動樣相을 좌파黨間的 紐帶
強化와 議會代表團 派遣 그리고 文化藝術을 내세운 浸透등 多樣한
外交活動을 展開하고 있다.

최근 西方一角에서 展開되고 있는 國際的 反核運動에 便乘하여 韓
半島의 非核化 輿論을 助長하려는 움직임도 北韓으로서는 比重있는
外交活動의 하나이다.

社會主義와 資本主義의 根本的 矛盾이 융합될 수 없음을 基本으로
하고 있는 北韓이 對西方外交를 보다 積極化하고 있는것은 그들의
赤化基本目標를 達成하려는 環境造成에 있음을 재언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나. 對美關係

北韓의 對美 基本態度는 敵對的이며 挑發的이다.

50年代 初期 韓國動亂 以後부터 60年代末 美·蘇間 兩極化된 冷戰期에서 對內的인 反美鬭爭 強化와 함께 反帝·反植民主義鬭爭을 표방하여 第3世界國家와도 손을 잡고 國際的인 反美共同統一戰線을 形成코자 하였다.

이러한 강경한 反美政策은 결국 68年 1月 프에블로호 피납事件과 69年 4月 EC-121機 격추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1972年 닉슨 美大統領의 中共訪問등 國際情勢가 急激히 變化하게 되자 北韓은 이러한 和解분위기를 이용하여 美國에 대해 政府와 國民을 分離하는 소위 人民外交 方式을 採擇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北韓은 71年 2月 뉴욕에 「美·朝 親善공보센터」를 설치하고 73年 9月에는 뉴욕에 주유엔 北韓代表部를 개설하는 등 人民外交 政策 遂行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와함께 北韓은 72年 5月 美國 뉴욕타임즈紙 솔즈베리 記者를 訪北 招請한데 이어 워싱턴 포스트紙의 「셀릭 헤리슨」記者, 하바드 大學의 「제롬 코헨」教授 등을 초청하는등 言論人 教授들을 대상으로 하는 人民外交를 적극 추진하는 方法으로 對美 接近을 꾀하여왔다.

이러한 人民外交는 74年 3月 北韓이 對美平和協定 締結 제의시 까지 集中的으로 展開되었다.

74年 3月 25日 北韓은 最高人民會議 第5期 3次會議에서 韓半島의 긴장을 해소하고 平和를 증진시키기 위해 美國과 協商할 것을 제의하고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代치하자고 제의하여 종래 人民外

交에서 탈피하여 政府次元의 外交接觸을 시도하였다.

이에대해 美國은 北韓의 제의를 거절하면서 한반도 平和를 위한 方法으로 南北相互不可侵條約 체결과 南北對話 再開를 促求해 나갔다.

한편 77年 1月 美國의 카터 行政府出帆 以後에는 北韓의 對美 態度에 많은 變化를 가져 왔는바 이는 카터가 선거 公約으로 主한 美軍의 단계적 철수를 제시하고 執權 以後에도 同 政策을 계속 추진하는등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이 急激한 變化 추세를 보인데 기인한 것이다.

77年 1月 金日成은 신년사를 통해 「美國으로 하여금 對美平和 協定 체결에 應해 나서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여 적극적인 對美 接觸 자세를 보였고 77年 3月에는 北韓 外交部長 허담이 맨스 美國務長官에게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美·北韓의 공동작업 必要性을 強調하는 서신을 傳達하였으며 77年 5月 金日成은 北韓을 訪問한 가봉 大統領과 77年 8月 北韓을 訪問한 티토 유고大統領등을 통해 對美 協商을 希望하는 書信을 카터 大統領에게 傳達하는등 對美 接觸 努力을 계속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北韓의 努力은 韓國의 參與가 없이는 北韓과 接觸 하지 않겠다는 美國의 確固한 方針 固守로 아무런 進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와함께 北韓은 對美 直接 接觸 努力과 병행하여 79年 4月 平壤開催 第35回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美國 선수 및 記者團을 公式 招請한데 이어 體育·文化 등 非政治的 交流 提議와 美國의 一部 進歩派 議員을 초청 교섭하는 등 對美 人事交流를 적극 추진하였으나

79年 7月 카터 大統領의 韓國 訪問을 契機로 美國이 撤軍 凍結 조치를 취하자 同 조치를 「2個朝鮮造作 및 侵略策動」이라고 비난하는 등 對美 강경자세를 취하였다.

이같은 狀況下에서 北韓은 81年 1月 레이전 美行政府의 登場을 계기로 撤軍政策이 白紙化하는 등 韓·美 安保 協調體制가 더욱 擴大·強化됨에 따라 「光州事態를 교훈삼아 崇美에서 깨어나 反美 自主에로 轉換할 것」을 促求한데 이어 「反美 自主化」口號를 채택하는 등 韓國內 反美·反政府國爭 분위기를 적극 鼓吹하였는바 82年 8月 釜山 美 文化院 放火事件 以後 나타나기 시작한 一部 극렬 좌경 학생들의 反美 氣運에 편승하여 美國을 「人權彈壓者」로 규탄하는 동시에 레이전 大統領에 대해서는 「好戰狂」, 「戰爭 狂信者」등으로 매도하는 등 극렬한 對美 非難攻勢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北韓은 이와같은 對美 非難攻勢를 展開하는 가운데서도 81年 10月 副主席 朴成哲이 사다트 이집트 大統領 장례식에 「參席하고 이 機會에 카터 前 大統領과 接觸하였으며 81年 4月과 10月에 金日成은 「카운다」 잠비아 大統領과 「하크」 파키스탄 大統領 訪北時 이들에게 對美 接觸 주선을 要請한 바 있고 83年 4月에는 金日成이 「무바라크」이집트 大統領 訪日時 日本側에 北韓의 對美接觸 의사를 傳達해줄 것을 要請하는 등 對美 接觸 努力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다.

84年 1月에는 韓·美·北韓간의 3者會議을 公式 提議하고 실질적인 美·北韓間 公式 接觸을 企圖하면서 84年 4月에는 外交部長 金永南이 中共에 대해 美·中共間 外相會談時 北韓의 對美 接觸 意

를 傳達해 줄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84年 6月에는 駐UN北韓 代表部를 통해 美下院 議員 「솔라즈」를 訪北 招請하는가 하면 同年 9月 第72次 IPU 總會時에는 北韓代表 진충국이 美國代表를 接觸하고 美·北韓 對話를 요청하는 등 非政治的 分野의 交流를 모색해 오던중 85年 10月에는 美아시아學會 學術會議에 北韓代表가 參席하기도 하였다.

이와함께 北韓은 84年 10月 外交部長 金永南이 워싱턴 포스트紙와의 會見에서 84年 9月 레이건 大統領이 提議한 信賴 構築方案에 대해 3者會談의 맥락에서 討議할 用意가 있음을 示唆함으로써 美國의 對北韓 接近을 유도코자 하는 外交努力을 경주하였으며 또한 3者會談 提議 以後에는 美 言論人 및 宗教人들에 대한 訪北 招請을 增大시킴과 同時에 UN總會 등 美國內 國際會議 및 各種 學術세미나 參加 名目으로 各種 代表團이 訪美 記者會見 등을 통해 對美 友好자세를 취함으로써 美國內 對北韓 輿論 순화와 함께 對美接觸의 窓口를 개설해 보려는 企圖를 드러내었다.

다. 對日關係

北韓이 對日 態度도 基本的으로 敵大的이다.

北韓은 日本을 美國의 支配下에 있는 「美帝國主義의 앞잡이」로 보고 곧 日本은 美帝의 아시아 侵略을 위한 진원지로 될것이라고 主張하고 있으며 日本의 軍國主義 부활과 再武裝 그리고 韓·美·日 3角安保協力體制가 韓半島 및 아시아 平和의 最大 위협 要因이라고 非難하면서 이를 견제하는데 總力을 기울이는 同時에 日本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弱화시켜 궁극적으로는 日本을 中立化시킴으로서 日

본의 對南北韓 등거리 政策을 유도하여 일본과의 外交關係를 수립하는데 目標를 두고 있다.

이러한 基本 目標아래 北韓은 55年 2月 外相 南日 聲明을 통해 日·北韓間의 國交 정상화와 經濟·文化交流를 최초로 提議하였으며 59年 8月에는 日本적십자사와 제일교포 「북송협정」을 조인한 것을 계기로 교포 북송문제를 구실로 對日 接近을 시도하였다.

60年代에 들어와서는 65年 6月 韓·日 基本條約의 체결로 韓·日間 國交가 수립된 以後 日本이 南北韓에 대한 등거리 政策의 실시를 거부해 왔으며 政·經 分離 原則에 따라 韓國과는 公式的인 外交關係를 유지하는 한편 北韓과는 經濟·文化的 接觸 및 交流를 증진시키는 政策을 취해왔다.

이에대해 北韓은 表面的으로는 「韓·日間에 체결된 諸條約들과 文件들은 한국침투를 爲한 매국적 협잡문건들로서 이는 無效이며 즉시 파기해야 한다.」고 강경한 어조로 非難하면서도 日本과의 關係 樹立이 가까운 時日內에 達成될 수 없다는 判斷下에 日本 政府의 對北 政策 緩和, 對韓友好政策의 견제, 그리고 政治, 經濟, 文化次元의 交流 強化에 外交的 努力을 기울여 왔다.

이를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72年 9月 金日成이 「韓·日 關係와 상관없이 日本과의 外交關係 樹立 可能性」을 示唆하는 등으로 70年代 중반까지는 國交正常化 實現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일본의 南北韓 등거리 政策 유도에 注力하였다.

그러나 75年 以後 日本의 對韓半島 政策이 南北韓 交叉承認 方向으로 추진되고 中共의 對美·日 關係 發展 등 주변상황이 한반도 현

상 고정화 추세로 발전하게 되자 78年 10月 金日成은 「現條件
下에서의 對日 修交는 交叉承認과 직결되므로 不可能하다。」고 主張하
면서 修交 問題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이와함께 北韓은 韓·日 협력관계 발전에 대해 「韓·日 군사적
결탁」, 「남조선에 대한 日本 軍國主義의 再侵策動」등으로 非難하
면서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80年代들어서는 韓·日 協力 關係를 계속 비난하면서도 日本의 自
民黨, 社會黨, 共產黨, 代表團을 비롯한 各種 代表團에 대한 초청活
動을 強化하여 政治的 次元의 交流로 發展시키고자 하였다.

81年 3月 日 社會黨 委員長 「아스카다 이찌오」가 평양을 訪
問하여 소위 「東北亞 非核地帶化」에 대한 共同聲明을 發表하였고
81年 4月에는 北韓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초청으로 日本 社會民主聯
合 代表團이 北韓을 방문한데 이어 81年 6月 노동당 국제부 부
부장 현준국이 대외문화연락위원회 名稱으로 日本을 방문하였다.

81年 9月에는 日本과의 정치관계 발전을 圖謀할 목적으로 「조
선-일본 友好親善協會」를 결성하고 위원장에 현준국을 임명하여 對
日 接觸 창구로 活用해 나가고자 하였다.

한편 81年 8月 韓·日 外相會談時 韓·日間 經協問題가 具體化
되자 北韓은 이를 「韓·美·日 3자군사동맹체제확립을 위한 美帝
의 計劃에 적극 협조하려는 것」이라고 非難하였고 82年 들어서도
對日 非難의 초점을 韓·美·日 協力強化에 두었다.

이와함께 北韓은 그들 군사경제수역내에서의 조업을 이유로 82年
中 3회에 걸쳐 日本 어선을 나포하는 등으로 對日關係를 경색시켰다.

이러한 對日關係 梗塞化는 83年 10月 北韓의 버마암살폭파사건에 따른 日本政府의 對北제재조치로 一層 深化되었으며 84年 1月 나가소네 首相의 訪韓에 이은 同年 9月 全斗煥大統領의 訪日 등으로 韓·日 協力關係가 다져지게 되자 北韓은 宣傳媒體를 총동원하여 韓·日關係 離間을 획책하는 극렬한 비난공세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北韓·日本關係는 85年 1月 1日 日本政府의 對北제재조치 해제에 따라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다.

85年 2月 北韓 體育시찰단이 訪日함으로써 雙方 體育交流가 정상화 되었으며 同年 4月에는 노동신문 주필 김기남의 訪日이 실현됨으로써 지난 81年 6月 현준극의 訪日에 이어 比重있는 政治人이 日本을 訪問하여 日本 言論界와 폭넓은 接觸을 갖고 3자회담, 국회회담등에 대한 北韓의 입장을 표명하는등 政治·外交的 活動을 전개하면서도 韓·日에 대한 非難을 삼가함으로써 日本內에서의 對北 交流 輿論을 造成코자 하였다.

同 訪日에 이어 85年 6月에는 김우중 「조·일 우호촉진협회」 회장이 訪日하였는바 여기에서는 이례적으로 미끼 前首相을 비롯한 高位人士들과 公式·非公式接觸을 갖는 한편 종래 交流가 없었던 自民黨과 交流를 적극 希望하는등 政治活動을 전개함으로써 日·北韓間 政治次元의 交流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企圖를 드러내었다.

한편 日本 政府는 85年 8月 고베에서 開催된 「유니버시아드」 大會에 參加하는 北韓선수단이 합승한 北韓 항공기의 日本 着陸을 허가함으로써 北韓과 日本間 직접운항이 최초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北韓은 85年 들어 12年만에 나가사키 현 知事를 비롯한

地方議員을 訪北 招請하여 日本內 對北 同調 輿論을 擴散시키고자 하였으며 日本의 매스콤, 學者, 文化人등을 폭넓게 초청하여 北韓에 대한 認識 變化와 北韓통일로선 지지 유도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함께 85年 2月에는 北韓 영화제작 代表團이 최초로 訪日하여 日本에서 직접 現地촬영을 한데 이어 85年 5月에는 第1回 동경국제영화제에 「돌아오지 않는 밀사」를 출품하고 85年 9月부터는 日本 各地에서 고구려 고분벽화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日本과의 文化交流 機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日本에서의 남북한간 文化的 正통성에 대한 競争을 야기시키고자 劃策하였다.

한편 經濟交流 및 協力面에서는 70年代 中盤 對日貿易 亦字幅의 增加로 일시 소강상태에 빠졌던 對日 交易量이 70年代 後半 以後 계속 增大되고 있으며 80年代들어서는 日本이 北韓등 東아시아 公産국가들과의 交易增大를 위해 設立한 「東아시아 貿易研究會」와의 빈번한 接觸을 통해 무연탄, 아연등의 자원개발을 中心으로한 日本과의 合作投資 事業을 추진하면서 특히 84年 9月 합영법 제정 以後 對日 合作을 大幅 증가시켰다.

또한 버마事件으로 인한 日本의 對北제재조치 기간(83.11~84.12) 中인 84年 10月에는 日本과 民間어업협정의 재체결에 합의하는 등으로 對日關係 증진을 위한 興件을 조성하였다.

이와함께 85年 7月 北韓科學技術代表團을 비롯한 各種 代表團의 日本訪問時에 技術資料의 제공을 요구하는 한편 88年 9月에는 日本 經濟界의 比重있는 人物인 南海電鐵會社 會長인 「가와가쓰넝」의 訪北 초청을 통해서는 對日合作을 위한 구체적인 事業까지 제시하는 등

日本과의 交流 擴大 추세에 편승한 經濟 交流 擴大를 적극시도하였다.

한편 社會黨과는 同黨이 日本內 제 1 야당임을 의식하여 對日 政策 추진의 창구로 적극활용하면서 매년 4~5회 以上 社會黨 代表團을 평양에 초청하여 雙方間 유대 協力關係를 강화하여 있으며 同黨의 傳統的인 親北 政策을 利用하여 日本政府의 對北政策 전환을 위한 각종 정치활동을 전개하도록 적극 사주하고 있는 가운데 特히 85年 5月 다나베서기장 訪北時에는 金日成이 「韓國 신한 민주당과의 交流問題를 日 社會黨이 결정할 문제이나 신한민주당을 自主化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日 社會黨을 통해 신한민주당을 간접 조종하려는 意圖를 나타내 주목된다.

86年에 들어와서도 北韓은 당비서 허담의 日本訪問을 위시한 勞動黨 代表團의 日本 訪問등을 적극 추진, 對日 정치적 접근을 집요하게 추진하면서 북송 일본인처의 母國訪問 早期 實現 可能性을 示唆하는등 對日 接近 努力을 계속 전개하고 있다.

라. 對西歐關係

北韓과 西歐는 基本的으로 理念과 體制, 路線에서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關係이나 이들 국가를 韓國의 공산화 실현을 위한 지원세력화한다는데 基調를 두고 있다.

北韓의 西歐 諸國에 대한 接近은 50年代에는 불란서 공산당과의 인사교류를 시작으로 同 地域의 좌파세력들과 초보적인 연계관계를 형성한데 이어 英國, 西獨, 스위스, 네덜란드등 一部 國家 商事들과 민간베이스의 通商을 개시하였다.

60年代에는 西歐地域 공산당 세력들과의 交流 및 유대강화에 力點

을 두고 61年 8月 英國 공산당을 필두로 벨기에, 불란서, 西獨, 스웨인, 이태리 등 6個 공산당 대표단을 초청하고 61年 3月 勞動黨 代表團의 오지리 방문을 비롯 5個 勞動黨 代表團을 이태리, 불란서 등에 파견하여 同國 共產黨과의 本格的인 交流를 시작하여 주요 계기시마다 雙方측전 交換 및 鬭爭活動에 대한 支援 表明과 함께 北韓의 통일로선에 대한 支持 획득에 注力하였다.

또한 通商增進 外交活動도 強化하여 60年 12月 오지리와 民間 貿易協定을 체결한데 이어 61年 12月에는 네덜란드와, 63年 10月에는 英國과, 65年 2月에는 불란서와 각각 民間 貿易協定을 체결하였으며 經濟代表團 파견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英國, 불란서, 西獨, 이태리 등 10個國과 거래를 擴大하였다.

이같은 結果로 60年代初 北韓의 對西歐 무역 규모는 570萬弗 수준에 머물렀으나 60年代末에는 7,800萬弗 수준으로 伸張되었다.

또한 68年 5月에는 「주불 北韓통상 대표부」 개설에 성공함으로써 최초로 北韓의 對西歐 浸透 據點을 擴保하였다.

70年代 들어서는 人事交流活動을 적극 전개하여 修交, 通商代表部 設置 交渉과 함께 貿易擴大와 科學技術交流活動 및 各種 國際會議에 參席하는 등으로 同 地域 浸透를 위한 外交活動을 本格化하였다.

또한 北韓은 西歐 社會黨과의 유대강화에 注力하여 76年 6月 불란서 社會黨 등 11個 代表團을 北韓에 초청하고 72年 3月 강랑욱 최고인민회의 의장등 16個 勞動黨 代表단을 12個國에 파견하여 同國 社會黨 大會 등 黨關係 행사에 參加하여 西歐 사회당 노선에 대한 支持를 表示하는 一方 이들로부터 北傀 統一方案 지지를 獲得

하는 등으로 雙方 關係 緊密化를 도모하였다.

한편 北韓은 同 社會黨 勢力들을 西歐共產黨과 함께 反韓活動 및 對北韓 承認을 위한 對政府壓力 勢力으로 活用하면서 西歐 地域에서 의 親北團體 結成에 注力하여 宣傳活動 基盤 및 據點을 구축함으로써 北韓 통일방안 선전등 親北活動을 전개함과 同時에 一 韓國內 人權問題 등을 集中 謀略하는 비난 活動으로 反韓분위기를 조성하여 韓國의 국제고립화를 유도하였다.

또한 北韓은 70年代初 西獨, 英國등 8個國으로부터 공장건설 장비를 도입하는 등 先進 설비와 자본 도입을 적극화하여 經濟協力關係 強化를 기도하였다.

그리고 70年代의 東西間 緊張완화 추세 및 普遍주의 경향에 적극 영합하여 말타, 스위스 등 9個國과 外交關係를 樹立하고 스위스 불란서, 이태리 등에는 國際機構 代表部를 설치함으로써 對西歐 外交 力量은 伸張되었다.

80年代에 들어서는 80年 1月부터 82年 2月 期間中에 불란서 미테랑 社會黨首를 비롯 13個國의 21個 高位 代表團을 초청하여 北韓 통일방안에 대해 支持獲得 등 政治的 關係 緊密化를 적극 摸索하는 동시에 81年 10月 金永南 黨 國際部長을 團長으로하는 勞動黨 代表團 등 17個 高位 代表團을 불란서, 西獨 등 10個國에 파견하여 修交 交渉, 通商代表部 設置提議, 高位人物 招請活動 등을 展開하였다.

또한 經濟 協力 擴大를 위해 영국, 불란서 등에 대한 外債를 一部 상환하는 등 신용회복자세를 보이면서 西獨 「지멘스」社 등과의

經濟協力 및 발전설비 도입을 추진하고北韓 鑛山開發에 西歐 國家 등의 參與를 요청하는 등 先進資本의 유치에 주력하였다.

이와함께 사회주의인терна셔널(SI) 浸透에도 注力하여 77年 12月 東京 SI 首腦會議 以後 「韓民統」의 加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80年 10月 스페인 SI 15次 總會時에는 勞動黨 代表團을 파견하여北韓 勞動黨의 읍서버 參席을 위한 活動을 함께 反韓活動을 적극 전개하였으며 81年 1月에는 SI 加入을 위해 조선민주당을 조선사회민주당으로 改稱하고 每年 同 機構 加入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한편北韓은 84年 9月 合營法을 採擇한 以後 各種 代表團을 스위스, 불란서 등에 파견하여 실질적인 경제협력 擴大를 摸索하였다.

즉 84年 11月 및 85年 3月 2차례에 걸쳐 貿易部長 최정근이 스위스, 스웨덴을 訪問하는가 하면 스위스, 오지리, 西獨등과 4億弗 상당의 발전소 설비 도입을 交渉하고 스위스와는 농업, 금속등 분야에서의 合作 投資를 제의하는등 對北韓 接近 유도활동에 치중하였다.

85年 들어서는 副總理 공진태,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협섭등 高位 代表團을 벨기에 및 말타 등 7個國에 파견하여北韓의 漸進的 經濟開放政策에 대한 이들 國家의 積極적인 支援 및 投資를 요청하였고 이태리, 룩셈부르크 등과는 社會黨 및 共產黨과의 「黨間 交流」를 제의하는 등 親北 勢力 扶植에 注力하였으며 이와함께 英國의 歐洲議會 議員들의 訪北을 추진, 英國은 勿論 EC內에서의 親北輿論 조성에도 全力하였다.

4. 北韓의 對UN 外交

가. 概要

北韓의 對UN 外交는 政權樹立 初期 UN의 干涉을 排除하는데 두고 南侵으로 因해 侵略者로 規定되면서 敵對關係로 突變하였다.

제네바의 有關國會議(54.4)는 UN을 떠난 南北間의 會談으로서 UN의 權能과 權威를 계속 否定하는 가운데 UN의 介入을 저지하려는 데 目的이 있었다.

62年 北韓은 UN에서 韓半島問題 討議時 參與必要性을 力說(62.6 의무성 비망록)하는 二重性을 드러내었으나 이는 美國支配下의 UN이 있다는 主張의 合理化와 UN과 「美帝」를 同一線上에 둠으로서 그들의 항변을 正當化 시키려는데 있었다.

韓半島에서 外軍撤出 主張은 反復되면서 70年初 中共의 UN가입으로 UN內 構造的 變化와 함께 北韓은 UN에 積極적인 參與의 움직임을 보이기 始作하였다.

UN 산하기구 加入과 經濟部設置는 北韓의 UN 參與를 現實化 시켰고 正統性 確保를 UN에서 찾으려는 기미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脫UN 政策이 아닌 積極적 對UN 政策 전개로서 75年 西方, 共產側案이 UN 總會에서 통과하였을시 北韓外交의 「歷史的 勝利」로 自讚하면서 UN 外交에 拍車를 加하였다.

이를 契機로 北韓은 UN 總會에서의 共產側 決議案 이행을 촉구하는등으로 UN에 積極적이다.

北韓의 이같은 矛盾된 UN 政策은 韓半島의 「2個韓國」인정 추세를

UN 내에서 저지하고 美軍은 撤收시켜야 한다는 國際的 輿論을 點火 시키자는 것이다.

이미 그들 路線이 UN에서 관철(75.12)된 以上 이의 實現을 위한 鬪爭을 UN과 그리고 UN의 테두리에서 併行 展開하자는데 있는 것이다.

나. 對유엔外交

北韓은 48年 유엔 第3次 總會에서 「大韓民國이 韓半島의 唯一合法政府」로 承認되자 外相 박헌영 성명을 통해 「北韓이 合法政府이기때문에 유엔에 초청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49年 4次總會때부터는 「北韓代表의 參加없는 韓國問題에 대한 어떠한 決定도 無效」라고 主張함으로써 유엔의 權威와 權能을 無視하고 韓國을 「美國의 앞잡이」라고 비방, 증상하는 등으로 韓國의 唯一合法性을 宣言한 유엔의 決定을 無效化시키는데 注力하였다.

그러다가 北韓은 유엔에 의한 合法政府 承認과 平和的 方法으로 赤化統一이 不可能하다는 판단아래 6.25 南侵을 敢行하였으나 50年 유엔 安保理에서 北韓과 中共을 侵略者로 規定하고 國際的 公認下에 美軍이 주둔하게 되자 53年 休戰會談에서 유엔軍司令官과 休戰協定을 체결한 뒤 유엔을 「交戰 當事者」로 비난하면서 정전협정에 의한 제네바 정치회담(54.4)을 계기로 南北韓을 包含한 「有關國會議」 召集을 提議하는 등 韓國問題를 유엔으로부터 分離시키고자 하였다.

한편 北韓은 한국과의 對等한 地位를 確保코자 49年 2月과 52年 1月에 유엔 加入을 신청하였으며 57年과 58년에는 蘇聯을 통해 南北韓 同時 加入案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60年代 들어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新生 獨立國家의 大舉 유엔 加入으로 유엔에서의 세력판도가 變化하기 시작하자 北韓은 同 地域에 대한 浸透를 강화하여 지지세력을 確保하면서 유엔總會에 「언커크 解任」, 「外軍撤收」, 「南北韓 同時 招請」등을 主張하였다.

北韓은 60年 15次 總會에서 條件附 北韓 招請 문제가 表面化되자 16次 總會時부터는 無條件 同時招請案을 提起하였다.

이러한 北韓의 同時招請 要求는 友邦의 反對로 否決되었으나 유엔에서의 北韓 지지 세력이 점차 증가하게 되어 50年代의 소극적인 態度에서 적극적인 態度로 전환되었다.

70年代에 들어서 韓國은 71年 26次 總會와 72年 27次 總會에서 韓國問題 討議延期案을 제출하였으나 北韓은 종래의 對유엔政策에서 轉換하여 韓國問題를 유엔에서 討議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이와함께 北韓은 73年 9月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에 常駐代表部를 開設하였고 제네바에 있는 유엔사무국에도 常任옵서버 代表部와 國際機構 常設 代表部를 設置하고 있다.

또한 北韓은 73년부터 韓國이 이미 加入한 유엔산하 기구에 加入하기 시작하여 10여개의 유엔산하기구에 加入하고 있으면서도 유엔에의 加入은 南北韓 單一國號에 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北韓의 이러한 態度 變化는 71年 26次 總會時 中共 유엔 加入으로 유엔의 세력구조가 크게 變化하였으며 국제적 緊張완화 추세로 北韓의 外交力이 伸張되었다는 점등에 起因한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狀況은 75年 제 30次 유엔總會에서는 韓國問題에 관해 西方側 결의안과 共產側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다.

北韓은 이를契機로 하여 西方側案과 종래 유엔에서의 韓國問題에 관한 諸決議의 無效化와 UNC의 즉시 解任, 美軍撤收 및 對美 平和協定 체결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韓國問題 討議를 종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30次 總會에서의 2個案 同時통과는 國際社會에서의 「2個韓國」 인정추세를 더욱 고조시키는契機가 되어 31次 總會以後 한반도 문제를 상정치 못하고 있다.

80年代들어 北韓은 유엔總會에서의 共產側 결의안 不上程 方針을 고수하는 가운데 각종 國際會議에서의 反韓결의안 採擇을 비롯하여 각종 親北 단체 및 인물을 동원, 親北集會와 성명을 發表하게 하는 등으로 國際의인 親北勢力 確保에 注力하고 있으며 韓國의 유엔同時 加入案에 대해서는 이를 「2個朝鮮操作策動」으로 비난하면서 유엔總會에서의 親北發言 유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85年度 第40次 유엔總會에는 北韓 부주석 박성철이 參席(韓國은 노신영 國務總理 參席)하여 종래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유엔의 活動에 적극 參加할 것을 시사하기로 하였다.

5. 北韓의 統一外交

가. 概要

自主, 民族, 民主國家로의 統一理念을 外面하고 階級鬭爭 理論에 入脚한 全韓半島의 赤化實現에 目標를둔 北韓의 統一外交는 그들의 統一戰略과 密接히 關聯되어 있다.

北韓의 統一戰略은 對內外的인 政治的 狀況에 따라 戰術的 變化를 보이면서 時間의 흐름에 영합하는 變化의 모습을 보여왔다.

이것은 對外的으로 投影되는 北韓의 統一路線에 대한 支持도가 反映하고 있다.

多少의 變化는 戰略推進黨를 위한 段階的 政策展開일뿐 對南戰略의 基本方向이 變化되지 않고 있어 再考가 必要치 않다.

이에 依해 北韓의 統一外交도 展開되어 왔고 時代에 따라 重點을 두어온 統一外交를 年代別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나. 統一外交의 變遷과정

北韓은 1945年부터 南侵開始期까지 政治的 空白狀態를 活用하는 가운데 全韓半島의 武力赤化를 위한 準備에 몰두하면서 武力統一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平和 政策을 展開하였다.

南侵期에서 戰後復舊期인 1961年 5月까지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을 試圖하였으며 戰後復舊를 위한 平和的 자세 必要 時間을 蓄積하는데 注力하였다.

이 時期에는 「4.19」以後 위장평화 공세를 격화시킨것도 當時 外交活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61年 6月以後 1970年까지 北韓은 暴力革命 準備로 設定하고 이를 驅使하는데 全力한다.

韓國의 強力한 反共政權이 出現되자 平和的 無法에 의한 目的達成이 어렵다고 判斷하고 暴力革命 準備에 拍車를 가하였다.

1966年 10月 黨代表者 會議에서 暴力과 非暴力의 配合을 公言하고 이어서 「124軍」 部隊를 創設하였다.

暴力鬭爭은 當時 淸와대 기습事件과 올진 삼척事件등 挑發이 連이어 自行되였다.

1971 年부터 1973 年 8 月까지는 南北對話 時代로 美·蘇 和解등 國際緊密완화 무드에 容納하여 平和에 便乘하는 立場을 보이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對話를 통한 人民民主主義 革命을 推進하는것이 戰略的 方針이였다.

1973 年 9 月以後 1979 年 10 月 期間에는 和, 戰兩面 戰術을 구사하는 時期로서 對話를 통한 赤化戰略이 蹉跌을 招來케되자 南北共存의 질서파괴에 總力을 기울이였다.

80 年代에 接어들면서 北韓은 非妥協強硬路線을 驅使하였고 「10.26」 事態에 便乘한 決定的 時期를 적극 活用치 못하고 失敗에 그치게 되었으며 고려연방안을 내세운 策略을 展開하였다.

海外에서 各種 國際會議에 參席하여 對南浸透 교란책동을 自行하기에 이르렀으며 1982 年 카나다거점 大統領 위해음모와 1983 年 10 月 버마暗殺事件등을 야기시켜 統治危機를 造成하는데 積極적 行動을 取하였다.

北韓의 이러한 時代的 黨略에 따라 展開된 統一外交는 그들의 主要 戰術이 重點的으로 다루어졌다.

統一革命黨 날조등 地下黨 부식을 위한 地下黨 戰術이 그것이다.

또한 上·下層 統一戰線을 形成하려는데 外交的 活動에 力點을 둔 것도 지적할 수 있다.

軍部瓦解를 겨냥한 反革命力量 瓦解戰術도 併行하여 展開하였다.

1970 年度 以前에 反美救國鬭爭의 國號가 對外活動 展開과정에서 頻

繁하게 表出된것은 주로 非同盟圈內 反美性向의 國家들을 中心으로 이루어졌다.

유신體制 當時에는 反과소 民主化 鬭爭이 主流를 이루었고 「10. 26 事態」後에는 民主聯合政權 樹立鬭爭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80 年代初半 以後부터 나타난 反帝自主化 鬭爭 슬로전은 北韓이 統一外交 수행을 위한 오늘의 爭點으로 부각시키고 있는것이다.

1984 年 1 月 三者會談 提議는 現時點에서 北韓統一外交의 中核을 이루고 있다. 當時 버마事件으로 因해 高潮된 內外的 糾彈의 輿論을 무마하기 위하여 위장 平和戰術策의 方案이었다.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會談 提議로 因해 對話에서 守勢를 모면하고 生産的 南北對話를 招來할 수 있는 口實이었다.

1984 年 9 月 水災物資 引受를 계기로 對話의 창구가 마련되게 되었으며 經濟, 赤十字, 國會, 「로잔느」 體育會談등이 이루어 졌다.

3 회에 걸친 赤十字會談은 이산가족 고향방문과 예술공연단 事業이 實現되었을뿐 本質問題에 대한 雙方的 對立으로 實質問題에 妥結을 보지 못하였다.

北韓의 自由往來 우선해결이 사업실천을 지연시켰고 親友問題를 방문대상 범위에 包含시킬것을 主張하여 事實上 原點으로 환원되는 양상을 보였다.

經濟會談에서는 交易과 經濟協力들의 問題에 必要性을 雙方이 認定하였으나 具體的 討議關係에서 北韓이 合意留保라는 主張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國會會談 예비접촉은 統一憲法기초안과 北韓의 不可侵선언案이 提

示되었으나 北韓의 2個案 受容자세를 보이면서도 本會談으로 이관시키려는 狀態에서 유보되고 있다.

1986年 6月 提議한 三者軍事會談은 三者會談에서와같이 駐韓美軍을 撤收시키기 위한 對美協商에 焦點을 두고 統一外交를 展開시키고 있다.

Ⅲ. 北韓外交의 特性

가. 政策과 理念面에서 指適할 수 있는 要素

우리는 北韓의 外交에 대해 흔히 硬直性を 띤 閉鎖社會에서 연
장되는 융통성없는 對外活動으로 斷案해왔다.

여기에는 그들外交의 劃一性和 柔軟성이 缺如되므로서 國際社會에서
外面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國際社會에서 南과 北
間의 外交競爭은 時間이 흐름에 따라 正面對談이라는 狀況으로 壓縮
되어 가고 있다.

60年代까지 南과 北의 懸격한 격차에 比하면 北韓의 外交는 括
目할만한 進展을 가져온것이 事實이다.

여기에는 170餘國이라는 限定된 國家를 對象으로한 外交領域內에서
北韓의 外交가 硬直性を 띄었던 劃一的인 活動에 局限되었던간에
이제와서 거의 對等水準에서 격렬한 競爭이 到來하고 있다는 事
實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北韓의 外交形態는 體制面에서 一貫性있는
永續性이 維持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外交의 劃一성이 急進的 發展形態를 가져오지 못한것이 事實이나 이
것은 北韓에 招來되는 急激한 變化가 오히려 否定的 影響을 미칠수
있다는 點에서 스스로 배격하는 長點이기도 하다.

北韓政權이 樹立된 오늘까지 38年이 지난 現在 總責으로 役割해
은 外交部長의 交替數가 5名에 그치고 있는 事實은 長期勤續으로

인한 持續的 政策을 遂行할 수 있는 特性이라고 指適할수 있다.

이러한 體制는 10餘個以上の 外交部 副部長團이 뒷받침하면서 地域別 전문성을 效果있게 運用해온 結果로도 볼 수 있다.

어느 國家에서나 지적할 수 있는 上位職制에 대한 無用論에 依해 하루아침에 體制가 改編되는 現狀은 北韓에서 있을수 없기 때문에 外交部 副部長의 多數起用은 그 特性을 살리고 있는것이다.

政策과 理念面에서보면 北韓이 自救策으로 提示한 自主路綫을 中·蘇와 關係에서 적응하여 왔고 오늘날까지 中共과 蘇聯과의 關係를 「代를 이어가는 關係」로까지 지탱해온 바탕이 되고있다.

50年代에서 70年代까지 新生國을 겨냥한 「反帝 反植民主義」 기치나 50年代이후 情勢에 迎合한 「反帝自主」의 슬로건은 對外的 名分을 提示해주고 있다.

社會主義 東方哨所를 主唱하면서 共產圈과의 結果를 圖謀하고 있는 一面은 北韓外交의 理念을 效率的으로 活用하고 있는 點이다.

北韓이 그들 外交의 國際的 弧立을 모면하기 위하여 내세운 自主性外交가 政權樹立以來 持續的으로 영위되어온 事實은 그들外交의 特性으로 지적할 수 있다.

理念과 政策이 提示되고 이를 遂行하는 政策機關이나 組織의 效率性이 나름대로 維持되어 왔다는 點에서 新生개도국으로는 선명한 점이 깃들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政策面에서 열거할 수 있는 要素로는 共產圈과의 紐帶關係를 強化하기 위하여 始發되었던 「親善友好協調」條約은 國家間的 結果를 다지는 바탕이 되는 제도적 장치의 口實을 하고 있어 對外活

動에 括目할만한 조치이기도 한다.

이러한 制度的 장치의 役割은 70年代 中半에 이르러 非同盟圈과 의 親善強化策으로 活用되고 있다.

또한 이같은 條約은 親北國家들과 軍事同盟의 內容을 加味하므로써 世界變化의 一翼을 擔當한 北韓으로서 「反帝統一戰線」의 擴大를 摸索하는 방편이 되는 점에서 注目되고 있다.

나. 機構와 體制面에서 指摘할 수 있는 要素

北韓의 外交가 黨國際부와 정무원 산하 外交部에 의해 중추적 役割을 遂行하고 있으며 獨斷的 政策을 推進하여 國際的 高립을 自招하였던 北韓의 外交가 오늘에 이르러 南北對決의 次元에서 對立되고 있는것은 그들의 特性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끈질기게 밀고 나가는 일관된 推進力이 있기 때문이며 이를 흔히 硬直性으로 불리고 있다.

이것은 社會主義的 政治體制가 變化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弱點이라고 規定할 수 있으며 急激한 變化는 反革命的 要素로 착결되어야 하는 體制의 特性이 內在해 있으나 外部世界와 쉽사리 융합하지않는 體制속에서 對外活動에 伸縮性을 기하고 있는것이 北韓의 外交活動이다. 即 活動의 多機能的 役割을 적절하게 調整하고 있다.

副主席과 副總理 등 動員할 수 있는 可用人員을 效率的으로 活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軍事 및 經濟人物을 外交活動에 併行하여 活用하므로써 實績을 쌓고 있는 것이다.

美·日등 西方國家들과의 關係改善을 위한 專擔기구를 獨立的으로 運用하고 있는것이 體制의 特異點이라 할 수 있다.

다. 活動의 執拗性으로 指適할 수 있는 要素

對外活動의 背後力量이 政策의 所産임은 再言의 餘지가 없으나 海外에서 展開되고 있는 北韓의 活動은 집요성이 있음을 쉽게 把握할 수 있다.

情勢에 敏感치 못하는 政策을 提示하는 경우에도 儀典을 무시한 活動을 通해서 目標을 達成하는 과거의 事例에서 北韓外交의 側面을 읽을 수가 있다.

斷交된 國家關係를 再開하고 公館이 閉鎖되어도 집요한 活動의 結果로 新任大使를 派遺하는 등의 끈질긴 根性이 北韓外交의 주변에 흐르고 있다.

이같은 저력은 既存의 親北性向 國家들과는 國際社會에서 代辯役割을 遂行할 수 있는 關係에까지 이끌어 올렸고 南北韓에 대해서 마온적 態度를 取하는 國家들과는 紐帶를 強化시키는 촉매작용을 하고 있다.

勿論 이러한 活動結果는 極히 一部에 지나지 않으나 北韓外交의 特性으로 지적할 수 있는 좋은 事例라 하겠다.

結論적으로 北韓外交를 外面視하고 外交의 不毛地로 등한시 해왔던 視點을 달리해야 하겠으며 그들에게 外交의 特性이 있으므로 하여 우리가 挑戰받고 있는 事實에 注目을 돌려야 하겠다.

70年代 以前の 北韓外交와 理念의 外交力을 比較할 수 있는 眼目이 우리에게 必要함을 認識해야 할 것이다.